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 光日春秋



양 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북한은 지난 11월 29일 대륙간 탄도미사일급 화성15형을 시험 발사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공화국 성명을 통해 ‘국가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 로켓제 강국 위업이 실현되었음’을 선포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 사회는 송유 중단, 해상 봉쇄 등 대북 압박·제재의 목소리를 높인다. 북한에 원유는 생명줄이다. 중국이 북한을 포기하지 않는 한 원유 지원을 중단할 가능성은 낮다. 중국은 한미동맹·미일동맹이 자신을 포위하고, 인도-태평양 전략이 자신들의 해양 진출을 차단한다고 인식한다.

해상 봉쇄는 군사적 역지가 아닌 군사적 행동이다.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고 전쟁으로 확산될 수도 있다. 한반도에

## 한반도 평화의 전환점 평창동계올림픽

서 전쟁은 승자와 패자의 게임이 아니다. 한반도가 없어지고 한민족이 없어지는 ‘역사적 종말’을 고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15 경축사에서 한반도에서 전쟁만은 막겠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해상 봉쇄를 요청해 오면 주권 국가답게 국민의 이름으로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우리가 한반도 문제의 주도자로서 우리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지킨다는 단호함을 보여 줄 필요가 있다.

최근 북한 문제를 둘러싼 북한과 국제 사회의 움직임은 혼란스럽다. 미북 간에는 말폭탄이 재생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을 ‘병든 강아지’로 조롱한다.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을 ‘미치광이 지랄발광’이라고 비판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도자적 위상이 추락되고, 북한은 외교적 품위가 떨어짐을 보여 준다.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방북 러시아 대표단에게 “미국과 협상을 벌일 준비가 되어 있다. 다만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아야만 협상에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협상을 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인지, 협상의 전제 조건을 강조한 것인지 불명확하다.

유엔 사무차장 제프리 펠트먼이 방북

했다.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오 구테흐스는 북핵 문제 해결의 중재자적 역할에 많은 관심을 표명해 왔다. 한국과 미국은 ‘비질란트 에이스’(Vigilant Ace)라는 연합 공중 훈련을 실시했다. 북한 수뇌부를 비롯한 핵심 시설에 대한 폭격 훈련이 공격 훈련인지 방어 훈련인지 분간이 쉽지 않다.

북한의 행동에 대한 예측은 쉽지 않다. 예측 없는 전략 구상은 실패의 확률을 배가시킨다. 북한은 공화국 성명을 통해 핵무력 완성을 선포했다. 핵무력 시험을 해서 실패한다면 핵무력 완성 선포에 흡족을 내는 꼴이 된다. 향후 핵실험이나 ICBM 발사와 같은 고강도 무력시위를 쉽게 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북한은 연말까지 핵무력 완성을 축하하는 군중집회를 통해서 체제 결속을 다질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2018년 신년사를 통해 핵보유국 선언과 함께 핵·미사일 모라토리엄 선언까지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전 긴장 국면을 주도했다는 자평 속에서 이후 대화 국면도 주도하기 위해 올림픽 참가를 포함한 남북 대화, 평화 협정 체결을 위한 북미 대화도 제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국면 전환 전

락을 앉아서 기다려서는 안 된다.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 중단과 평창올림픽 참가, 한미군사훈련 연기와 북한의 양자·다자 대화 호응 등의 문제에 대해 한미·한중 간의 소통과 조율을 거쳐 공통분모를 찾아야 한다. 공통분모를 가지고 북한과 논의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효율적이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정책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시대를 여는 것이다.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의 평화 정착이 시급한 과제이다. 내년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남북 관계와 북핵 문제의 병행 진전을 위해 시동을 걸어야 한다. 북한도 우리 민족끼리라는 말만 하지 말고 민족 우선의 원칙에 따라 남북 대화에 호응해 나와야 한다.

미국은 지난 7개월 동안 최대 압박이라는 대북 정책이 문재인 정부의 적극적인 참여를 평가해야 한다. 이제 트럼프 행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한반도 평화 정책에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할 때이다. 기회는 자주 오는 것이 아니다. 한반도의 위기를 지속시킬 것인지, 기회로 전환시킬 것인지는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전략과 의지가 달려 있다.

### 종교칼럼



변 찬석  
천주교 광주대교구 교정사목

## 성탄절을 기다리며

도를 기다리는 시간이다. 사실 우리는 대부분 ‘기다림’이라는 희망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는 누군가를 기다리거나 또 무엇을 기다리면서 결국 우리가 지금보다 행복해질 거라고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만약 우리가 누군가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면, 그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나에게 있는 사랑을 베풀 사람인가? 아니면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줄 사람인가? 혹은 나에게 어떤 이득을 가져다 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는가? 2000년 전 유대인들도 그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 당시 로마의 식민지 상태를 구원해줄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혹은 사람이 아닌 그 무엇인가를 기다릴 수 있다.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다. 어떤 이에게는 명예 혹은 보다 나은 자리일 수도 있을 것이다. 또는 지금보다는 행복한 세상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다. 작년 추운 겨울에 촛불을 들고 나오는 시민들의 마음 안에 또 무엇인가를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마음과 당장에 이루어졌으면 하는 희망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기다림이라는 것은 단순히 시간을 흘려 보내는 것이 아니다. 기다린다는

는 것은 다른 말로 준비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기다리는 것이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할지 준비하는 것이고, 내가 기다리는 것이 재물이라면 그 재물을 얻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다.

성탄절을 기다린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 걸까?

앞에서도 이야기 했듯이 성탄절은 2천 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날이다. 그리고 내 안에서 새롭게 탄생하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성탄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기 힘들다. 첫 번째의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은 마굿간에서 태어나셨다. 예수님께서 마굿간에서 태어난 이유는 가장 낮은 자로 오셨다고 의미를 부여하고는 있지만, 성경에서 알려주는 이유는 여관에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오늘날 다시 오시는 성탄절에 우리는 내 안에 내어드릴 방을 준비하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까지도 방이 없어서 첫 번째 성탄처럼 예수님을 마굿간으로 내보내고 있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성탄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 안에 방을 내어 드리기 위해 자신을 비우는 준비가 필요하다.

또한 우리는 지난 촛불 집회에서 ‘이게 나라냐?’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진정한 나라를 기다리기 위해 어떤 준비를 했는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바뀌었다. 그러나 대통령 한 명이 바뀌었다고 우리의 준비는 끝난 것이 아니다. 사람 한 명 바뀌었다고 세상이 갑자기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유시민은 ‘국기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훌륭한 국가는 우연한 행운이 아니라 지혜와 윤리적 결단의 산물이다. 국가가 훌륭해지려면 국정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훌륭해야 한다. 따라서 시민 각자가 어떻게 해야 스스로가 훌륭해질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현재의 대한민국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시작했다. 이 시작을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우리는 촛불을 들면서 돈이 권력이 되고, 권력이 실력이 되는 세상이 끝나기를 바라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말했다. 열심히 공부하고 살아가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 수 있다는 소망을 담았다. 열심히 노력하면 희망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았다. 성탄을 기다리면서 새로운 세상을 기다리기 위해 우리는 준비해야 한다.

우리는 촛불을 들면서 돈이 권력이 되고, 권력이 실력이 되는 세상이 끝나기를 바라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말했다. 열심히 공부하고 살아가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 수 있다는 소망을 담았다. 열심히 노력하면 희망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았다. 성탄을 기다리면서 새로운 세상을 기다리기 위해 우리는 준비해야 한다.

### 기고

## 당신의 묘비명은 어떻게 쓰렵니까



신 춘자  
시인·수필가

을 이어가면서 어떤 영광스러운 순간에도 만족하지 않고, 더욱더 꾸준히 생활 패턴을 일구어 보람된 삶을 살다가 94세가 지 정수한 분이다.

그런 분이 묘비명을 그렇게 쓴 것은 우물쭈물하는 후세인들에게 교훈적인 강한 메시지를 남기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우물쭈물하지 말고 정신 차리고 살아라’는 충고다. 나도 조지 버나드 쇼와 같은 그런 묘비명을 미리 써놓고 싶었다.

누구나 개인 사정은 있다. 내가 상가 관리상 잠시 ‘꽃백화점’과 ‘탁구교실’ 2개 자영업업을 운영하면서 원고 청탁을 받을 때마다 신작을 창작하려고 밤잠을 설치는 과로를 했다. 업무와 창작에서 열정을 쏟다 보니 명절에 가족들도 조상 산소를 함께 거차고 강요하지도 않았지만, 사실 힘들어 가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주말에 내가 꽃바구니를 만들어 들고 남편과 셋째 아들과 함께 시아버지와 큰 시숙님 산소 묘비 앞에 서니, 그동안 잊고 있었던 아직 써놓지 못한 내 ‘묘비명’을 어떻게 쓸까 망감이 교차했다.

인간성 형성의 삼대 요소는 유전, 교육, 환경이라고 한다. 남편은 시골 엄한 종가에서 출생한 지 4개월 20일 만에 어머니를 잃었다. 교육이 열악한 환경에서 외롭게 자란 교육자 남편에게 최선을 다했다. 입을 양다문 일부종사(一夫從事)였다. 그의 어머니를 대신해 ‘죽을 수 있는 용기면 다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했다.

대가족이 함께 살아가는 시집살이, 세월이 선물한 아들 삼형제 등 내가 뿌린 씨앗은 내가 거둔 모성애 그 자체였다. 나를 세상에 보내 주신 조상과 하나님께 보답으로, ‘죽어도 죽지 않는’ 큰 흔적을 세상에 남길 수 있다는 마음으로 문장가의 꿈을 키웠다.

그런데 내 묘비명을 어떻게 써야할까?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생각이 계속 이어지지만 했다. 익살스럽고 위트 있고 교훈적이며 오래도록 여러 사람이 기억할 수 있는 조지 버나드 쇼의 묘비명과 같은 특별한 묘비명은 없을까. 우리 모두 서로 권하며 미리미리 써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자 지난 세월을 반성하고, 작은 영광에 만족하지 말고 더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자각도 생겼다.

조지 버나드 쇼 묘비명의 교훈처럼 나도 우물쭈물하는 작가가 되지 않기 위하여 내 묘비명을 일단 써냈다. ‘일부종사(一夫從事), 모성애(母性愛), 문장가(文章家), 뿌리가 키운 열매’로 묘비명을 일단 써보니, 조지 버나드 쇼의 묘비명은 누구도 따를 수 없는 훌륭한 묘비명이라는 생각을 또다시 하게 되었다.

### 社說

## 아파트 경비원 해고 막은 참 따뜻한 사람들

한겨울에 차가운 거리로 내몰릴 처지에 놓였던 아파트 경비원들의 해고를 주민들이 적극 나서서 막았다는 훈훈한 소식이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아파트 경비원 감원 바람이 본격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나온 소식이어서 따뜻한 세상살이의 온기가 전해진다.

광주 일부 아파트 관리사무소들은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16.4%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관리비 절감을 위해 경비원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 서구 풍암동 금호타운 1차아파트 역시 입주주민들의 관리비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해 경비원 여섯 명을 감축하는 투표를 실시하기로 하고 최근 주민들에게 통보했다.

그러나 지난 며칠 전 진행될 예정이었던 경비원 감축 투표는 무기한 연기되었고 사실상 경비원 감축이 중단됐다. 이러한 결정의 배경에는 한 정적 호소문이 있었다. 570세대가 살고 있는 이 아파트의 엘리베이터에 얼마 전 한 주민의 호소문이 붙은 것이다.

이 호소문에는 “얼마 되지 않은 돈이지만 경비 아저씨들께겐 생계가 걸렸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호소문은 주민의 마음을 하나둘씩 움직이게 했고, 일부 주민은 직접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경비원 해고 투표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주민들은 예정대로 여섯 명의 경비원이 해고됐다면 줄일 수 있었던 아파트 1세대당 1년에 30만 원(한 달, 2만 5000원) 상당의 관리비를 포기하며 대신 경비원들을 살린 것이다. 10년 넘게 아파트를 위해 고생한 경비원들의 생계가 달린 문제를 고작 3만 원을 아끼려고 주민투표를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 이곳 주민 모두의 한결같은 마음이었다.

이번 금호아파트 주민들의 ‘경비원과의 상생’ 결정은 ‘함께 나누고 더불어 사는 광주정신’의 결정판이라 할 만하다. 이러한 따뜻한 소식이 방방곡곡으로 퍼져 전국적인 본보기가 되었으면 한다.

## 전기 시내버스 도입, 중국 기업 유치 계기로

친환경 선도 도시를 표방한 광주시가 전기 시내버스 시대를 연다. 광주시는 친환경자동차 매카 조성을 위해 내년부터 전기 시내버스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전기 시내버스는 문화중심 도시 광주의 친환경적 이미지를 부각시킬 뿐만 아니라 광주 전기차 산업에 대한 중국 기업의 투자에도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기 시내버스는 소음과 매연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 대중교통 수단이다. 최근에 개발된 버스는 전기차의 단점으로 지적돼 온 주행 거리 문제를 해결, 한 번 충전에 300km 이상을 운행할 수 있다. 완전 충전에 72분이 걸리지만 운수회사의 여건에 맞춰 20분 충전에 150km 주행 가능한 기술력도 확보했다고 한다.

광주시는 최근 윤장현 시장과 현대자동차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대자동차 전기버스 설명회를 갖고, 광주시청에서 김대중컨벤션센터까지 운

행하는 시승 행사를 가졌다. 시는 내년 상반기 안에 전기버스 20대를 시내버스 노선에 투입할 계획이다.

차량 구입 비용이 일반버스보다 훨씬 비싼 전기버스를 광주시가 도입한 것은 친환경 교통수단의 보편화 추세에 대비하는 한편 중국의 전기차·배터리 기업 유치를 염두에 둔 전략으로 분석된다. 특히 전기 시내버스 한 대당 연료비가 연간 1500~2000만 원 정도 싸다는 경제적인 이득도 고려됐다.

광주시는 다음 주에 한전과 전기버스 충전소 설치를 위한 MOU 체결을 시작으로 전기버스 도입의 첫발을 땀다. 이번 전기버스 도입을 계기로 광주시는 미흡한 국내 전기차 수요 때문에 광주공장 건립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중국 ‘조이퉁’ 전기차동차를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한다. 또한 광주의 전기차 부문에 투자·협력 의사를 밝힌 중국 배터리 제조기업인 ‘초위그룹’의 실질적인 투자도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 無等鼓

‘하버드 대학의 성인’으로 불렸던 정치철학자 존 롤스(John Rawls)는 G3 수험생들에게는 반갑지 않은 인물이다. 그의 철학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번번이 높이기 위한 문제로 종종 등장하기 때문이다. 한 해 시험에서 무려 2~3개 문항이 출제되는 경우도 있었다. 롤스는 대표적으로 ‘정의론’과 그 확장판 격인 ‘만민법’을 남겼는데, 이를 토대로 한 문제가 사회탐구 영역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에 매년 등장한다. 올해 수능에서 수험생들이 집단 이의 신청을 낸 문항(생활과 윤리 18번)도

으로 고려하는 자유주의가 정의’라는 철학이다. 롤스는 “재산과 권력의 불평등을 허용하되 그것이 모든 사람, 그 중에서도 특히 사회의 최소 수혜자들에게 그 불평등을 보상할만한 이득을 가져오는 구조이다. 한 해 시험에서 무려 2~3개 문항이 출제되는 경우도 있었다. 롤스는 대표적으로 ‘정의론’과 그 확장판 격인 ‘만민법’을 남겼는데, 이를 토대로 한 문제가 사회탐구 영역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에 매년 등장한다. 올해 수능에서 수험생들이 집단 이의 신청을 낸 문항(생활과 윤리 18번)도

### 다시 ‘정의론’

다시 ‘정의론’

다시 ‘정의론’

반부 외에도 ‘시민 불복종’, 병역 거부와 관련된 ‘양심적 거부’ 등 최근 사회 문제와 연관된 내용이 적지 않음에도 말이다. 학생들이 다 읽지 못한 정의론을 부모가 읽어 보면 어떻까. 바로 우리 사회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주체가 기 때문이다. 수험생들에게 현실과 거리가 먼 롤스의 철학을 시험에서 ‘정답’으로 써내도록 할 것이 아니라 부모세대들이 세상을 바꿔 주는 게 먼저다. 이제 기성세대들이 정의론에 답할 차례다. /윤영기 사회부장 penfoot@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김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8005)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집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7-9500)	기획관리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FAX 227-9500)
정치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사 회 2 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